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누란의 국가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고통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이 더위조차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운동 분야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해 오던 사람들로써 지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탓으로 어려움을 당한 박영숙 선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생은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의 일원으로, 특히 여성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천으로 열심히 일해와 저희들의 존경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말미암아 박영숙선생은 사회적으로 그토록 비난받을 만큼 재산이 과다하고 그 축적과정에서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숙 선생과 그 부군 안병무 박사가 살아온 삶을 가까이 지켜본 우리들로서는 그런 일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어두운 군사정부하에서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함께해 온 박선생 부부가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대단한 축재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병무 박사가 두차례나 해직되고 투옥되는 등 시련의 세월동안 박선생이 생업을 위하여 서울 근교에 양계장을 하였던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대단한 규모의 재산이거나 투기 목적에서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실은 여러 언론의 후속보도, 정정보도등의 형식으로 그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별첨하는 자료들을 보시면 모든 진상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언론에 잘못 보도됨으로써 훼손된 박영숙 선생의 명예는 아마도 쉽게 회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잘못된 사람이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며 동시에 선량한 사람이 뜬 소문이나 악의적인 흠집내기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6월

박영숙선생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사람들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객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권호경(기독교방송 사장), 김동완(NCC 총무), 김상근(대한기독교서회 사장), 김성재(한신대 교수, 아우내재단 이사장), 김제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노윤희(서울대 명예교수, 녹색연합 공동대표), 문선경(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문호근(예술의전당 운영본부장),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종렬(KSCF 총무), 박종화(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서경석(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신필균(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신해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안상님(국민회의 당무위원), 유상덕(한국교육연구소장), 유시춘(작가), 유재현(세민재단 이사장),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윤순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이문영(아태재단 이사장), 이미경(국회의원), 이상영(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이성재(국회의원), 이석태(변호사), 이세중(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승희(국민회의 전문위원), 이연숙(환경마크협회 회장), 이영순(서울시의원), 이정자(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해동(한우리교회 목사), 이해학(성남주민교회 목사), 이효재(정대협 공동대표) 인제근(인권운동가),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영희(내일신문 사장), 한명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황성규(한신대 교수, 한국민중신학회장), 홍영진(의사, 인하대 교수)

“정치권-언론에 생매장당한 내 인생”

박영숙 전 평민당부총재의 하소연

하마평 무수히 써대다가 느닷없이 “비리인물” 낙인
언론 사실확인도 없이 홍미거리로만 전달 ‘치명상’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도매금에 넘겨질 수 있나요.”

정치권과 언론에 던지는 박영숙 전 평민당 부총재(66·시진)의 물음이다. 박 전 부총재는 지난 30일 언론에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단수추천’돼 사실상 내정됐다고까지 보도됐으나 청와대의 불리한 반박으로 장관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더구나 재산·형성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꼬리표와 함께... 한평생을 시민운동에 헌신해 오면서 야당 총재 직대까지 역임했던 그가 한순간에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누구한테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를 마음대로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문제 인물로 규정하니 누구를 잡고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 부총재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4월 30일. 김종필 총리 서리가 주전 장관의 후임으로 박 부 총재를 단수추천했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했다는 총

리실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부총재는 다음날 ‘결격사유’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후보에서 탈락했고 김도일 대한직접자사 부총재가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됐다.

박 부총재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청와대나 총리실은 물론 언론 어디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신문에 따라 △재산 과다설 △재산형성 비리설 △김대중총리와 불화설 △본인 고사설 등 추측성 보도만이 난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측 역시 박 전 부총재가 “문제가 있다”고만 설명했을 뿐 무슨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30일자 박스 기사에서 총리실 설명과 달리 ‘복수 추천’을 내세운 청와대 공식인장을 ‘거짓말’로 규정하기도 했다. 경향은 사실상 박 전 부총재의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한 해설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박 부총재 탈락 사유에 대해선 ‘재산 관계 검증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중앙)는 식의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재산 관계에 대한 박 부총재의 해명은 이렇다. “남편(고 안병무 박사)이 해직 교수 시절 생계 보전 차원에서 하남에 양계장을 사둔 것이 있었어요. 1천 1백평 정도입니다. 이 곳이 땅값이 올라 3억 13억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팔려고 했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습니

다. 재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치욕적’으로 만들 만큼 부끄러운 재산은 결코 아닙니다.”

사정은 이런 데도 언론은 청와대 한 관 계자를 무책임하게 흘린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확대·증폭하고 나섰다. 관심의 초점도 한 개인의 인권 보다는 철저히 청와대와 총리실의 권력 내부에만 쏠렸다. ‘공동정범의 한계’, ‘인선 진풍’ 등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관심 영역이다. 재산이 문제가 있다면 언론 역시 독자적인 취재망을 가동해, ‘의문점’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언론은 박 전 부총재의 ‘과도한 재산’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어떤’ 재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 검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은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전임자가 재산 문제로 낙마해 박 전 부총재 임명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면서도 “재산 형성과정은 ‘생계용’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제도적 보완책이 없다면 얼마든지 언론과 정치권이 연대해 한 개인의 사회적 평생을 ‘압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60평생이 단 칼에 치욕스런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준채, 장한철기자

박영숙 “돈소문이 사람 잡습니다”

복지부장관설로 곤욕... “인사청문회 있었다면 나같은 피해자 없었을 것”

“내가 장관시켜달라고 운운한 것도, 나에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온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보건복지 분야는 문외한으로, 장관할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장관이 적임자로 임명된 것은 다행인데, 그 와중에서 제게 재산형성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온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돈소문에 따라 정부 인사자 왔다갔다한다는 게 얼마나 졸렬한 겁니까.”

4월29일 주양자씨의 후임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거론됐다가 4월30일 재산문제 때문이라는 출처가 불명치 않은 설명과 함께 ‘낙마’한 경험이 있는 박영숙전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같은 피해사례가 생겼다고 봅니다’고 항변했다.

“재산이 많다” “서울 우면동 자택에 그린벨트 형질변경 문제가 있다” “93년 재산공개를 피해 영국으로 갔다” 등 장관 파동 당시 제기된 설에 대해 박씨는 “남편(고 안병무박사)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당하는 등 시련을 겪는 동안 생업차원에서 경기도 하남에서 양계장을 했는데, 현재 그 땅 1000여평의 평당과표가 110만원으로 올랐다. 그게 내 재산의 큰 몫인데, 그것을 재산

과다라고 하면 그건 좋다. 그러나 마치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했다.

우면동 자택은 이모씨가 80년에 지어 살던 것을 90년에 매입, 구청의 지시대로 마무리해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지목이 대지와 임야로 돼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박씨는 말했다.

박씨는 또 93년 민주당 당무위원을 그만둔 것은 그 집전 전당대회 부총재 경선에서 낙선한데다 당시 이기택총재 주도의 총재단 회의에서 자신의 여성특위위원장 임명이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 정치에 회의론 느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일 뿐 재산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 이후 정치권과는 결별하다시피 지내고 있는데 왜 내가 돈소문에 시달려야 하느냐”고 박전 의원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98.5.14일자, 「뉴스플러스」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98.4.30,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98.6.12, SBS 8시 뉴스)

지난 4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수 제청됐던, 박영숙 전 의원이
장관 임명에서 제외된 것은
재산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난 7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군인 고 안병무 교수가 두 차례 해직을 당하고
3.1 민주구국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양계장을 운영한 것으로서
투기를 한 사실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가 개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8.5.28일자, 「뉴스메이커」 임희경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중에서 발췌

일설에는 이 집이 불법 형질 변경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7일 만에 물러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였지 않았습니까.

“이 집은 90년 12월에 이사온 이후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확연코 하지 않았습니니다. 수유리 집을 산 사람들이 그곳에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나무를 다 없애겠다고 해서 그 나무들을 뽑아다가 여기 심어 놓은 것이 다입니다.”

(박 전 부총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 5월16일 오전, 박 전 부총재의 자택 형질 변경 여부 현장답사를 부탁했다. 그는 오후 4시경 답사를 마친 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을 해왔다.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 불법행위인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그는 “빈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녹지 보존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을 깎고 전원을 조성했다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자면 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도 했다.)

박 전 부총재의 재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93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당무위원직을 내놓고 정계를 떠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뒤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계를 이미 떠난 사람이었고, 사실도 아닌데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무시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선 것은 이 나이에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JP ‘박영숙 추천’은 DJ 물먹이기용?

국민회의 “재산문제 알면서 천거” … 총리실선 “억측”
박씨 “내가 장관하겠다고 했나 … 공식 문제제기할 것”

김 모임연세대보건대학원장으로 낙착된 4월30일의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은 전임 주양자전장관의 불명예 퇴진과는 또 다른 문제와 구설을 남겼다.

김종필총리서리(JP)가 주양자씨 후임에 4월29일 김대중대통령(DJ)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박영숙전평민당부총재를 단독 추천했다고 공개한 이유, 또 청와대가 굳이 박씨를 배제하고 김모임씨를 장관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인지 도대체 석연치 않다. 더욱이 청와대는 4월30일 김모임장관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박씨의 탈락 사유에 대해 「재산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5월1일엔 「본인이 고사했다」(김중권비서실장)고 오락가락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정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측이 애당초 언급했던 박씨의 「재산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여권 주변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씨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듯하다. 이미 93년초 민주당 고위당직자 재산 자진공개를 앞두고 당내에는, 박씨의 저를 서초구 우면동 자택이 그린벨트 형질변경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시 박씨가 재산공개를 하지 않고 당무위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소문은 더욱 꼬리를 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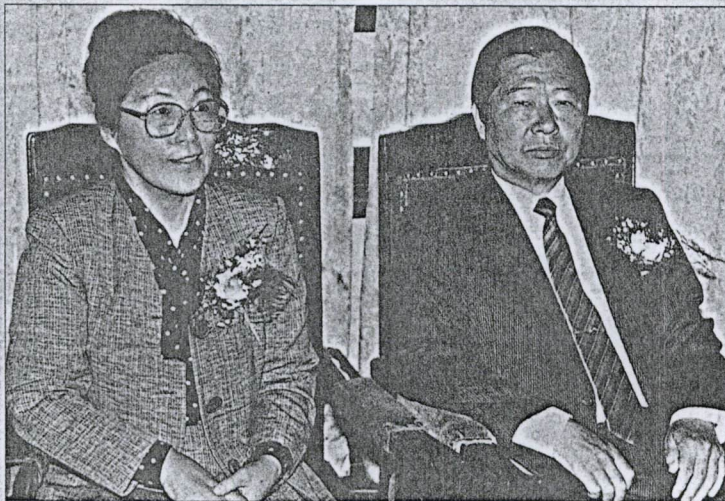
박씨 본인은 5월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의 많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운이 좋았던 때문인지 재산이 좀 있긴 있다. 72년 양계장

을 하기 위해 하남시에 산 땅이 그동안 값이 올라 평당 과표 110만원짜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린벨트 형질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 가서 알아보라」고만 말했다.

“내 사람만 문제 아니라 DJ사람도 마찬가지”

어쨌든 박씨가 장관이 되지 않은 만큼 그의 재산문제를 공론화할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박씨는 엉뚱한 구설에 휘말린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다. 박씨는 「왜 이러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내가 장관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전혀 물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나무에 올려 놓고 혼든단 말이나」고 항변했다. 그는 「나도 명예가 있다. 이번 건에 대해 공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공적 처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다정했던 동지 88년 7월 평민당의 한 행사장에서 당시김대중총재와 나란히 앉은 박영숙씨.



DJP공조 금이나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국무총리서리의 청와대 주례회동.

로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박씨를 총리실과 청와대가 상처낸 꼴이다.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가기 힘든 의문이 생긴다. 박씨를 추천하고, 또 공개까지 한 JP가 과연 박씨의 「재산문제」를 모르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특히 평소 인사문제에 대해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JP이기에 의문은 더 커진다.

이와 관련, 93년의 「박씨 건」을 기억하는 국민회의 사람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유독 총리실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JP가 청와대 공식 발표에 앞서 굳이 박씨를 언급한 「속셈」에 대해 곰피 않은 시선을 보낸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공동정권이라면서 JP가 이럴 수 있느냐. 이번 건은 김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자신의 사람인 주양자씨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DJ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식의 생각에서 사건을 만든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물론 총리실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이라고 필적뼀다. 박씨를 추천한 것은 「내



NEWS+SHIN

사람 네사람 따지지 않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야 출신인 박씨에게 문제가 있을 줄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것. 다만, 당시 시간에 쫓기다보니 총리실 차원에서 사전 검증을 하지 못한 게 실수라만 실수라는 얘기다.

“DJP 숨은 갈등의 산물” 분석도

총리실 관계자가 설명하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당초 JP는 4월29일 오전 10시에 신임 장관을 청와대에 제청할 예정이었다. 앞서 4월28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여성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총리실은 여러 군데에 인물을 물색했으나 적임자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

제청 시간을 오후 5시로 연기하며 인선을 계속하던 중 오후 3시경 총리비서실 관계자들이 13대 때 국회 보사위에서 활약했던 박씨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고, JP도 괜찮다는 반응이어서 박씨를 1안, 김도임씨를 2안으로 하는 제청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갖고 갔다고 한다. JP로선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 아예 DJ측 인물을 천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대통령은 깜짝 놀라며 『박씨로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으며 박씨의 이력서를 집었다고 한다. JP는 오후 5시30분경 청와대에서 돌아와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인물 본위로 박씨를 추천했다. 국가를 위해 큰 틀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오호진공보실장에게 말했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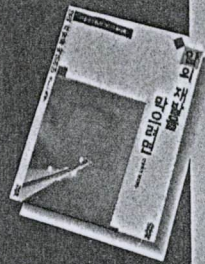
것이 기자들에게 전해졌다. 오실장은 『단수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각에 청와대의 박지원대변인은 DJ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김총리서리가 두 분을 제청했다. 밤에 검증과정을 거쳐 내일 신임장관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총리실과 전혀 다른 발표를 한 데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93년 당시 김대통령은 영국 체류중이었고, JP는 여당이어서 두 분 다 박씨의 문제를 자세히 모른 채 일단 박씨로 결정했던 것 같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이를 수석비서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가 제기돼 박대변인이 「복수 추천」과 「검증」을 골자로 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각 때 박씨가 환경부장관에 거론된 적이 있는데, 청와대 일부 비서관은 그때 박씨의 문제를 인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밤새 김중권비서실장이 JP에게 두차례 전화로 해 재조율한 끝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국 김씨로 낙착됐다. 총리실도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DJP간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다.

갈등이 없었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박씨의 주장대로 장관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면 공연히 물망에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망신을 주는 식의 경망스러운 해프닝, 더 나아가 사생활 침해의 월권행위를 벌인 책임은 분명히 여권 수뇌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승모 기자



의 재발을 막으려면

180면/4,500원

의학박사 황성주 지음

◆주요내용◆

1. 전인치료의학이란?
2. 암은 완치되지 않는다. 다만, 정복될 뿐이다.
3. 스트레스는 이렇게 극복한다.
4. 암의 재발과 전이는 이렇게 저지한다.

- ◇암환자의 잘못된 신념 5가지
- ◇암치료의 3대 원리
- ◇암정복 10계명
- ◇면역기능을 높이는 식이요법
- ◇암환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 ◇미술토요법 Q&A
- ◇면역요법의 효과
- ◇치유를 위한 칼럼



◆황성주박사 약력◆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지구병원(청와대직속병원)에서 예방의학과장을 지내고, 한림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또한 그는 독일의 프리덴비일러병원, 웨셀브론 병원 등에서 '암의 면역요법'과 '전인치료의학'에 대해 연구했다. 1994년 4월 뜻한 바 있어 의대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초동에 사랑의 클리닉을 개설(현재 논현동으로 이전 ☎ 02-3445-2277)하면서 본격적으로 암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암환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암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이론적으로 타당하면 바로 도입하여 '면역요법'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암치료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저자와의 대담◆

1998년 5월 14일 (목) 오후6시
사랑의 클리닉 세미나실
(예약 ☎ 02)3445-5751)

도서
출판 **호도에**
☎2)3445-5751



임희경기자의
직격인터뷰

복지부장관 '낙마' 파문

박영숙 前 평민당
부총재

“법적대응 준비 중입니다”

박 전 부총재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YWCA연합회 총무로 여성운동에 뛰어 들었다. 당시 만난 사람이 현재까지 절친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영부인 이화호 여사다. 이후 한국여협사무처장, 한국NCC여성위원장, 아세아기독교여성위원장, 한국여협 수석부회장 등 여성계 원로로 성장했다. 87년 평민당 부총재로 정계 입문, 13대 의원(전국구), 평민당 총재권한 대행,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93년부터는 정치 활동보다는 환경운동에 전념, 환경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청 와대에서 이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졸렬했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자택에서 만난 박영숙 전 평민당 부

총재(66)의 목소리는 아직도 흥분에 떨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인선 파동 보름이 지났지만 ‘불명에 낙마’ 한 박 전 부총재의 가슴 속 시간은 그때 그 시점에 멈춰 있었다. 그 일 이후 자택에 칩거하고 있는 상태.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해서”라고 했다.

창피의 본질은 ‘들켰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억울하지만 해명할 길을 찾는 순간까지는 오명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 그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해온 동지들이 강력히 권하고 있단다. 이들을 통해 무료변호를 맡겼다는 뜻을 전해온 변호사만 3~4명. 칩거 중 유일한 외출은 이들과 만나 소송 준비를 하는 일이다. 그는 5월말까지는 서류 준비가 다 갖춰질 것이므로 이때 공식적인 기자회견과 함께 정식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 했다.

소송의 상대는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박 전 부총재는 박 대변인에 대해 유독 섭섭한 마음이 강하다. “그 사람이 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없다”는 심정이다. 그는 이 소송을 통해 언론(3개 방송사, 6개 일간지)에 정정보도를 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상황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만만치않은 부담이 될 것 같다. 박 전 부총재나 박 대변인은 모두 김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박 전 부총재가 박 대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섭섭함은 ‘낙마 이유’에 대한 그의 공식 코멘트에 있다. 청와대측은 4월30일 주양자씨 후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로 전달 저널까지 확정적이었던 박 전 부총재가 아닌 김모임씨를 공식발표했다. “박 전 부총재를 유력한 후보로 생각했으나 실사과정에서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바꾸게 됐다”는 것이었다. ‘박 전 부총재 확정’ 발설로 화근을 제공한 김 총리서리까지 나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이 소동이 자칫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서리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했기 때문. 결국 간단명료한 ‘후보 탓’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김종권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은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김 실장은 5월1일 청와대 기자실에 나타나 이 소동의 전말에 대해 “박 전 부총재와 가까운 한 장관이 ‘본인이 입각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와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김 교수(김모임 당시 연세대보건대학장)만 검증을 계속한 뒤 문제가 없어서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4월30일 박 대변인은 “재산문



박 전 부총재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자택.

제 탓"이라고 했고, 하루 뒤 김 실장은 "본인 고사"라는 식으로 오락가락한 것이다.

김 실장의 이런 멘트에는 김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박 전 부총재의 불명예를 씻어주기 위한 '배려'가 깔렸던 것 같다. 박 전 부총재는 이날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여사를 만나 섭섭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이 여사는 박 부총재에게 "안타깝다"고 했다 한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진의 우왕좌왕 당황하는 모습은 이 사건의 본질을 '김 대통령과 김 총리서리의 불협화음'으로 보던 언론에게는 더 좋은 빌미가 됐다. 박 전 부총재 역시 구설의 주인공으로 '고스란히' 남았을 뿐이다.

김 실장은 본지와 5월6일 인터뷰에서 '29일 밤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날 오후 김 총리서리가 후보 7~8명의 이력서를 들고 대통령에게 왔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영숙 전 부총재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더니 '능력 있는 분'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총리실에 돌아간 김 총리서리는 김 대통령의 마음이 박 전 부총재에 있다고 생각, 존안자료를 검토하기도 전에 확정된 것으로 기자들에게 알렸다. 김 대통령의 의사를 100% 존중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의전상 실수가 생긴 것이다."

김 실장의 설명은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날 저녁 시내 모 호텔 행사장에서 우리 법무비서관(박주선씨)에게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부랴부랴 이 사실을 총리서리에게 알렸다."

그럼 박 전 부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와 마주 앉은 자택 거실에는 짝 맞지 않은 가구가 나뉘대로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이사가는 친구들에게서 한 개씩 얻어서 그렇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장관직을 고사한 적이 있습니까.

"거론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나보고 장관 할 생각이 있냐는 의사 타진 한 번 받아본 적 없었어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4월29일은 무척 바쁜 날이었습니다. 4개의 행사에 참여하게 돼 있었거든요. 마지막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밤 10시30분이었습니다. 집에

5월말까지는 서류 준비가 다 갖춰질 것이므로 이때 공식적인 기자회견과 함께 정식 문제 제기 나설 것. 소송의 상대는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돌아오는 길에 전광판 뉴스에서 제가 후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유력하다고 나왔다는 말을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30일 아침에 후임장관으로 다른 사람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방송 뉴스를 통해 김모임씨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책임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지요."

재산 형성과정에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난 운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떴습니다. 제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양계장 두 곳(하남, 안성), 약간의 현금 정도입니다. 우선 이 집(대지 140평, 임야 100평)은 76년도에 산 수유리 집(300평)을 팔아서 90년 1월에 3억원 정도에 산 것입니다. 양계장은 우리 집 아빠(남편인 고 안병무 박사를 지칭)가 옥살이(1976년 '민주국헌선언 사건'에 연루, 1년반 동안)할 때 생계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 땅이 지금 가격이 올라서 하남 양계장은 13억원, 안성 양계장은 1억4천만원 정도 합니다. 말로만 하면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서류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밖에서 2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아빠가 신학연구소를 하느라고 지고 간 빚이 9억원이 넘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96년 10월)에 맘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남 양계장을 어떻게 해서든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녹지를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설에는 이 집이 불법 형질 변경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7일 만에 물러난 것도 마찬가지 이 유였지 않았습니까.

"이 집은 90년 12월에 이사온 이후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확연코 하지 않았습시다. 수유리 집을 산 사람들이 그곳에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나무를 다 없애겠다고 해서 그 나무들을 뽑아다가 여기 심어 놓은 것이 다입니다."

(박 전 부총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 5월16일 오전, 박 전 부총재의 자택 형질 변경 여부 현장답사를 부탁했다. 그는 오후 4시경 답사를 마친 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을 해왔다.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 불법행위인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그는 "빈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녹지 보존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을 까고 전원을 조성했다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자면 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도 했다.)

박 전 부총재의 재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93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당무위원직을 내놓고 정계를 떠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뒤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계를 이미 떠난 사람이었고, 사실도 아닌데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무시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선 것은 이 나이에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메이커

강봉균 전면 등장으로 확대된 살생부 파동 7일

특집 / 개혁구호 바랜 'DJ인사'

복지부장관 '낙마' 박영숙 인터뷰
경제엘리트 모임 브레튼우즈 클럽
프랑스 월드컵 이렇게 관전하라



'우먼 타이거 우즈'
박세리

“장관이 뭐길래 30년 인생‘역경’ 무너뜨립니까”

여성주간에 국민훈장 받은 박영숙 씨, ‘재산시비’ 일촉

“이번 포상이 정부 공식훈장 으론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사실 전 여성 발전에 별 공적이 없어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함께 한 일에 대해 대표로 ‘인정’ 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여성주간에 여성 발전유공자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 정책연구소 소장(66). 전 평민당 부총재이자 부군인 고 안병무 박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길을 걸어온 재야 지식인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포상이유도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사건 및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 규명 등 80년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고, 13대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가족법 개정 등을 주도해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 등이다.

그러나 그의 포상은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만으론 그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대학시절 YWCA 회원으로 활동해온 이래 꾸준히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것에 비하면 이번 포상이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어떤 면에선 정권교체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여성운동가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감사표시는 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자라온 여성운동의 역량을 가늠케 한다. 또 하나는 근래 조각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추측도 낄는다.

사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 조각과정에서 박 소장은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의 박영숙 소장. 후임 보건복지부장관설로 치룬 곤욕으로 앞으로 도 환경운동에만 전념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사진·민원기 기자)

장관후보 1순위로 언론에 거론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번도 공식적인 장관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박 소장은 평소 이를 두고 ‘언론장관’일 뿐이라고 웃어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첫 조각결과 잠잠해졌던 그에 대한 관심은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중 하차하자 다시 일기 시작했다. 박 소장은 임명발표 바로 전날인 4월 29일 후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에게서 미리 축하인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30일 언론들이 일제히 “재산 형성과정중에 문제가 있어” 장관 임명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낙마 이유도 애매한데다가 정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한동안 이 해프닝의 여파는 계속됐다. 그로부터 2주 지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난 박 소장이 주변의 여러 경로를 통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소문의 진원지는 어이없게도 98년 정계에 떠돌던 악성 루머였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총재 경선에 낙선한 이후 이기택 당시 총재 주도의 당 노선에 회의를 느껴 아무 말없이 정계를 돌연 떠났기 때문이다.

보도된 재산형성과정중의 문제에 대해 박씨가 추측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25.6년 전 민주화운동으로 남편이 해직당하는 등 생업이 어려워지자 경제적 이유로 매입한 경기도 하남의 양계장 부지 천여평의 값이 치솟아 10억원대를 호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살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 자택이 그린벨트에 묶여있어 시비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프닝 이후 언론권의 <미디어 오늘>이 임명제의 이유가 근거가 없다는 반박 기사를 첫 발표했고,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보도를 내보낸 <뉴스 플러스>, SBS 8시 뉴스 등이 정정보도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 쪽에서도 해프닝 이후 두달이 지나 공식통로를 통해 사과를 해왔다. 또 6월 들어서는 신혜수 한국여성 의전화 회장, 손봉숙 한국여성 정치연구소 소장, 유종성 경실

“이번 일을 보며 30년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지기들도 ‘혹시나’ 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도 저지만 작고한 남편에게 터무니없는 비리 인사설로 누를 끼친 것 같아 무

언론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설로 곤욕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강력권고
앞으로 환경운동에만 전념할 터

런 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50여 명의 지인들이 ‘박영숙 선생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결성해 실상을 알리고 있다.

슨 악몽을 꾸 것처럼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시민운동이 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5,6년은 환경운동을 하느라

더 살아야 하는데 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기조차 겁나더군요. 전 원래 이처럼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박 소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래야 여성인력들의 고위직 진출이 성 편견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때문이다. 몇몇 여성장관들이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난도질 당하다가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해야만 하는 것 자체를 “남자재산은 백억이 넘어도 되고, 여자재산은 10억이 되면 안된다”는 일종의 여성비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일체 정계와 인연을 끊고 95년부터 환경운동에만 전념해온 박 소장의 현재 최대 우려는 IMF사태로 환경운동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는 환경운동에 시민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정부·기업·소비자간 3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고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이은경 기자)



“엄마, 우리 뛰면서 IMF 날려보내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춘호)이 7월 5일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개최한 ‘엄마와 딸이 함께 뛰는 3km 마라톤대회’. 백여 명의 엄마와 딸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야외무대,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지를 힘차게 달렸다.

(사진·민원기 기자)

세계의 여성 - 조기 암진단 문제삼는 의학박사 로라 필즈

“유년비유이해도 인식할 수 없다”